

번역학 술어 번역에 관한 고찰

전 현 주
(한북대)

1. 들어가는 말

1972년 홈즈(Holmes)가 자신의 논문에서 번역학을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명명(1988/2004)할 것을 제안한 지 40여년이 지났으며, 스넬-혼비(Snell-Hornby)가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1988)한 이후 가히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번역학의 발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당시를 풍미했던 화용론적인 사조(思潮)는 ‘번역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의 문화적인 인식의 전환은 번역학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다학제적이며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번역학을 조망하는 기류가 형성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과거의 축적된 이론을 재조명하며 번역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들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Snell-Hornby 2006). 특히 번역학의 다학제성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체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술어들이 망라(Markshuttleworth 1999/2007: vi)되

고 있으며, 심지어 수학(게임이론, game theory)과 생물학(번역 밈, translation memes) 분야의 개념도 접목하여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도 새로운 술어들이 출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소위 신생학문(the nascent discipline)(Holmes 1998/2004: 181)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번역학이 보다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술어(述語, terminolog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번역학을 수용하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났으며 ‘번역학’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학회가 발족되고 학술지¹⁾가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서구중심의 번역학 이론을 기반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번역학 관련 술어의 번역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번역학의 획기적인 발전상이나 다학제적인 통찰력, 그리고 역동적인 연구 성과 등에 비할 수는 없지만 번역학 술어의 번역과 이의 용례 및 정착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번역학 관련 전문서적의 한국어 번역본을 살펴보면 동일한 술어를 지칭하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동일 서적 내에서도 일관성 없는 술어들이 종종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문서적뿐만 아니라 종종 학술지별, 언어권별, 혹은 소속별로도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통의 학문을 지향하는 번역학의 입지를 감안하면 술어 번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조명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론은 스스로를 해명하는 술어 속에서 개념의 형태로 응집되고 일단 술어에 응집된 개념은 다시 술어를 통해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술어란 이론이 추구하는 개념의 핵심적인 알맹이가 갈무리된 장소(김정우 2000: 6)에 해당하므로 번역학의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술어의 번역 현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국내에서 발간된 번역학 개론서를 중심으로 번역학 술어의 한국어 번역 양상 및 사용 실태에 근거하여 술어 번역의 중요성 및 문제점, 그리고 합의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

1) ‘한국번역학회’는 1999년에 출범했으며, 학술지 『번역학연구』는 2000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며, 이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술어 번역

2.1 'terminology'와 '술어'

영어의 'terminology'는 우리말로 '전문용어(專門用語)', '용어(用語)', '술어(術語)', '학술용어(學術用語)', '학술어(學術語)'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들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언어를 가리킨다(국립국어원 2007: 11-15). '용어'는 특히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²⁾로 '전문용어'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의학용어', '경제용어', '법률용어', '불교용어', '인터넷용어' 등 분야와 관련되는 명사와 합성하면 보다 명확하게 사용 범주가 제한되어 '전문용어'의 대용어(代用語)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를 줄여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술어'는 '학술용어' 혹은 '학술어'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가리키는 용어의 하위개념이다(류동춘 2005: 210). '전문용어'는 반드시 학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술어'는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번역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용어를 주로 다루므로 '술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2 선행연구

학술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술어는 해당 이론을 기술하는 개념어이므로 단순히 단어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이론을 수입하여 저변확대를 꾀하는 목표언어 국가에서는 술어의 선택 못지않게 번역 역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술어 번역의 중요성을 피력한 연구 성과는 번역학 안팎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번역학 내부의 관련 학술지에서 술

2) 다음(daum) 국어사전.

어 번역에 관하여 가장 먼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정우(2000)는 외국 언어학 이론의 도입 과정에서 번역을 통해서 탄생한 언어학과 관련된 술어의 현황을 점검하고 술어의 번역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정호정(2007)은 번역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번역용례를 추출하여 번역학 연구를 위한 용어 통일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0년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전문용어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다언어 전문용어학이 향후 번역과 번역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하고 번역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용어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김성원·김정우(2011)는 영어-한국어 대역 형태의 의학전문 용어집의 번역양상을 조사하여 원어와 번역어의 대응구조(번역유형)와 번역기법(번역의 방법론)을 밝혔다. 그리고 이은용(2013)은 번역학 용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번역 유형을 비교 고찰하였다.

번역학 외부에서 술어 번역과 관련된 논의 사항 중에서 박용삼(1995)은 독문법 전문용어의 한국어 번역 문제를, 임동훈(2007)은 국어학 분야에서 번역 술어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이한 번역술어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술어 번역의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그리고 임병권(2002a와 b)은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원칙과 문제 및 번역시 번역자들이 지향하는 사항에 관하여, 맹주역(2003)은 중국 언어학 술어의 번역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술어 사용에 대한 고찰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국 언어학 기술과 논의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류동춘(2005)은 현행 중국 문자학 용어의 한역방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의 성격을 ‘번역의 원칙 및 기준’을 중심으로 삼은 경우와 ‘용례’ 중심의 연구로 나누어 보면, 전자의 경우 번역학 내부에선 김정우(2000)의 ‘술어번역의 기준’을, 번역학 외부에선 국립국어연구원(1996)의 ‘술어번역의 기준’, 임병권(2002a)의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원칙’, 임동훈(2007)의 ‘국어학 술어의 번역 기준’, 그리고 이현주(2007)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기준’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번역학 내부에선 정호정(2007)의 ‘술어 통일의 시급성’, 정호정(2010)의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접목의 필요성’, 김성원·김정우(2011)의 ‘의학 전문용어집 분석 - 번역유형과 기법’, 그리고 이은용(2013)의 ‘한일 번역학 술어 번역의 유형 비교’ 등이 있다. 그리고 번역학 외부에선 박용삼(1995)의 ‘독문법

용어의 한국어 번역문제’, 맹주역(2003)의 ‘중국 언어학 술어의 번역’, 그리고 류동춘(2005)의 ‘중국문자학 용어의 한역방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특징 및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술어 관련 선행 연구의 특징 및 성격

	번역의 원칙 및 기준 중심	용례 중심
번역학 내부	김정우(2000): 술어번역의 기준	정호정(2007): 술어 통일의 시급성 정호정(2010):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접목의 필요성 김성원 · 김정우(2011): 의학 전문용어집 분석 - 번역유형과 기법 이은용(2013): 한일 번역학 술어 번역의 유형 비교
번역학 외부	국립국어연구원(1996): 술어번역의 기준 임병권(2002a):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원칙 이현주(2007): 전문용어의 표준화 기준	박용삼(1995): 독문법 용어의 한국어 번역문제 맹주역(2003): 중국 언어학 술어의 번역 류동춘(2005): 중국문자학 용어의 한역방법의 문제점

이들 연구물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술어는 단순히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 이론의 일부가 되므로 술어의 선택(국립국어연구원 1996: 20)은 물론 번역 역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점이다. 특히 외래 이론의 수입과 동시에 해당 이론의 침범역할을 하는 술어의 번역은 이론의 토착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술어가 온전하게 번역되지 않으면 이론 역시 토착화될 수 없음(김정우 2000: 7-8)을 강조하고 있다.

2.3 술어 번역의 양상

2.3.1 분석 대상 텍스트

번역학은 번역 현상과 관행 혹은 지침 등을 대상으로 번역전략이나 이론 혹은 정책이나 역사 등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술어는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매개체로 논의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혹은 발전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분석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번역학 입문과정에서 접하는 도서가 술어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사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번역학 관련 개론서의 한국어 번역본 4종을 주요 분석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독일어 원전을 번역한 임우영 외(2011)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모두 원천언어가 영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엄재호(嚴宰鎬 1993)와 김지원 외(2004)는 동일한 원전을 각각 초판과 재판의 번역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전자는 국내에 번역학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후자는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본격적으로 번역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초기에 번역된 점에서 비교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2〉 분석 대상 텍스트 목록

	저 자	역 자	출 판 연 도	서 명	출판사
1	수잔 바스넷·맥과이어	嚴宰鎬	1993	번역학 개론	인간사랑
2	수잔 바스넷	김지원 외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3	Jeremy Munday	정연일 외	2006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한국외대 출판부
4	라데군디스 슈톨체	임우영 외	2011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한국외대 출판부

2.3.2 동일 개념이 다양하게 번역된 술어 사례

현재 번역학에서 술어 번역이 혼재하는 상황은 정호정(2007)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translator’(번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술어만 해도 ‘역자’, ‘번

역자', '번역사', '번역가'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ource language-target language'(번역대상 언어와 번역 결과물 언어)는 '출발어-도착어', '원천언어-수신언어', '출발언어-목표언어', '출발어-목표어', '원천언어-목표언어', '원천언어-수용언어', '원어-번역어', 그리고 'SL-TL'을 포함하여 8쌍이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source text-target text'(번역대상 텍스트와 번역 결과물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원작-번역작', '원전텍스트-번역본', '원문-번역문', 그리고 'ST-TT' 등 20쌍이, 'explicitation-implication'은 '의미의 외현화-명시화', '의미의 외현화-명시화', '의미의 명시화-외현적 번역, 의미의 명시화-내재화', 그리고 '명시적 의미-묵시적 의미' 등 많은 사례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다양한 술어의 번역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떤 개념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는 다양한 술어가 출몰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번역학 이론의 토착화를 위하여 관련된 중요 술어의 번역 특징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번역학에서 논의하는 술어 번역의 양상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출처의 동일한 이론을 지칭하는 술어들이 번역서마다 다르게 혼재되어 있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문자학 용어의 韓譯방안 연구」에서 류동춘(2005) 역시 같은 내용을 서적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동실이명'(同實異名)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번역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학술 분야의 공통적인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번역학'의 명칭과 관련된 대목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가령, 흠즈의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분류표(Munday 2008: 9-13)와 관련하여 엄재호는 '翻譯學'(1993: 서문)으로, 김지원 외와 정연일 외는 '번역학'(2006: 10)으로 한글과 한자의 표기방식에 차이만 존재할 뿐 동일한 번역어를 선택한 반면, 가장 최근에 발행된 번역학 개론서인 임우영 외에서는 '번역연구'로 번역되어 있다(2011: 163-5, 164 그림).

- 3) '번역하는 사람'의 경우는 술어 번역의 4가지 사례는 문맥이나 지칭하는 목적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출처의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지칭하는 술어가 서로 상이하여 독자들에게 혼란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서로 상이한 술어로 번역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우선 원전의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가령, 영어의 경우는 ‘번역학’⁴⁾으로, 독일어는 ‘번역연구’로 ‘Translation Studies’를 옮겼다. 이는 영어권과 달리 독일어와 불어권에서는 이 표현의 등가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학문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기(이영훈 2013: 196)⁵⁾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흠즈가 언급했던 다음의 대목, "He also stresses the need to forge 'other communication channels, cutting across the traditional **disciplines** to reach all scholars working in the field, from whatever background'"(1988/2004: 181)에서도 ‘disciplines’를 정연일 외(2006: 10)에서는 ‘학계’로 본 반면 임우영 외에서는 ‘분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각각 ‘번역학’과 ‘번역연구’로 옮겼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계의 현실과 관련하여 선행 혹은 기존의 번역을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 텍스트에 국한해서 보면 엄재호의 전례를 따라 후속 도서 역시 ‘번역학’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임우영 외는 분석 대상 개론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도서임에도 전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언급이나 필진의 입장도 전혀 표출된 부분이 없는 것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언어권의 차이가 큰 이유로 작용한 것 같다.

‘학’(學)과 ‘연구’(研究)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⁶⁾이나 중국⁷⁾의 경우에도 이영훈(2013: 200-3)이 언급한 바와 같이 두

4) ‘Translation Studies’와 관련하여 영어권에서는 ‘번역학’의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들은 사전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98년의 초판과 2008년에 재판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과 1999년의 초판에 이어 2007년에 재판된 『번역학사전』(Mark Shuttleworth 2007: introduction) 등.

5) 이영훈 2013: 196의 각주 24 재인용: 최근 독일에서 출간된 독·영·불 3개 국어 번역학 백과사전(Harald Kittel, Armin P. Frank, Norbert Greiner (eds.) (2004-2011) *Übersetzung/Translaton/Traductio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Übersetzungsforschung/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a recherche sur la traduction*. 1-3. Berlin: Walter de Gruyter.)의 부제가 영어 ‘Translation Studies’의 번역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Übersetzungsforschung’이나 ‘recherche sur la traduction’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학문 명칭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6) <http://ja.wikipedia.org/wiki/翻譯研究>ほんやくけんきゅう、英語: translation studies)

가지 술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번역연구’ 역시 양립할 수 있는 술어로 간주해야하지만, 독립된 학문분야를 지칭하는 술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② 번역의 종류

야콥슨(Jakobson)이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1959/2000: 114)에서 분류한 번역의 세 가지 종류와 관련하여 분석 대상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술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3〉 번역의 종류(Jakobson)

번역의 종류 출처	intralingual translation	interlingual translation	intersemiotic translation
	rewording	translation proper	transmutation
엄재호 외 (1993: 27)	언어 內的 번역	언어 相互的 번역	記號 相互的 번역
	단어바꾸기	translation proper	변형
김지원 외 (2004: 43)	언어내 번역	언어간 번역	기호간 번역
	바뀌 쓰기	진정한 번역	형태 바꾸기
정연일 외 (2006: 2)	동일 언어 간 번역	異 언어간 번역	기호 간 번역
	바뀌 쓰기	본원적 의미의 번역	변환
임우영 외 (2011:39)	언어 내적 번역	언어 상호적 번역	기호 상호적 번역
	바뀌부르기	실제적 번역	변환

엄재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번역학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의 번역 본으로 ‘內的’과 ‘相互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며, 임우영 외에서 한글로 표기방식으로 바꾸어 술어 번역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相互的’, ‘상호적’, 그리고 ‘間’(간)으로 번역하였다. ‘interlingual translation’을 달리 ‘translation proper’로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proper’를 ‘진정한’, ‘본원적 의미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번역하였는데 상호간의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엄재호의 ‘translation proper’는 ‘원어차용(zero

7) <http://zh.wikipedia.org/wiki/翻譯研究>

translation)⁸⁾에 해당하기보다는 번역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rewording’이나 ‘transmutation’은 우리말로 번역한 점에 비추보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론서 외의 번역학 관련 연구에서 오미형(2010: 149)은 ‘진정한 번역’을, 박소영(2012: 56)은 ‘본원적 번역’을 번역 술어로 사용하여 이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반면, 송연석(2012: 60)의 ‘순수번역’은 새로운 술어를 사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번역의 방법

번역의 방법을 ‘word-for-word’와 ‘sense-for-sense’로 최초로 구분하기 시작한 키케로(Cicero: BC 1세기)와 제롬(St. Jerome: AD 385; 1997: 235)의 주장을 기점으로 양분되는 두 가지 입장은 번역학 역사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핵심적인 술어이기도 한다. 전자는 ‘직역’(literal translation)을 후자는 ‘의역’(free translation)을 가리키는 술어⁹⁾와 병행하거나 유의어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정연일 외에서는 한글 ‘대’의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자 ‘對’로 대체하였으나 대체로 ‘단어 대 단어-의미 대 의미’의 쌍으로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번역학회가 발간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계의 공통된 술어를 적용하였지만, ‘축의(번)역(逐意(翻)譯)’을 첨가(2009: 143-4)하여 ‘의역’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표4〉 번역의 방법 1 (Cicero & Jerome)

출처 \ 번역방법	word-for-word translation	sense-for-sense translation
엄재호(1993)	word-for-word式 번역	sense-for-sense式 번역
김지원 외(2004)	단어 대 단어 번역	의미 대 의미 번역
정연일 외(2006:23)	단어 對 단어 번역	의미 對 의미 번역

8) 이는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로, 유명우(2000: 238)는 ‘원어 차용’으로, 김성원외(2011: 33-52)와 이은용(2013: 248)은 ‘영번역’으로, 그리고 오미형(2012: 62)은 ‘무(無)번역’으로 술어를 번역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미의 효율적인 전달력에 중점을 두고 ‘원어차용’으로 지칭한다.

9) 한국번역학회(2009)에서는 전자를 ‘축어(번)역’으로 후자를 ‘자유번역’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번역의 방법을 논의할 때 드라이든(John Dryden 1680; 1992: 17)은 번역의 범주를 ‘metaphrase’, ‘paraphrase’, 그리고 ‘imitation’로 분류하였다. ‘직역-의역-모방’과 ‘옮겨쓰기-바꿔쓰기-모작’으로 구분되는 술어와 관련하여 전자는 ‘-역’으로 후자는 ‘-쓰기’로 일관성이 결여된 술어를 사용한 점은 이쉽게 생각된다. 그렇다고 막상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모역’(模譯)은 우리말 어휘에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하는 점에서 무리가 있으며, 반역을 피하거나 묘(宗廟), 산릉(山陵), 궁전(宮殿) 등을 파괴하기를 피한 죄를 일컫는 ‘모역’(謀逆)을 연상시키므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 ‘모작’(模作) 역시 ‘남의 작품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거나 그 작품’을 의미하므로 ‘단어 혹은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저자의 감정이나 열정에 대한 역자의 자율성이 가미된 번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치 않다. 따라서 필자는 차선책으로 ‘직역-의역-모작’과 ‘옮겨쓰기-바꿔쓰기-고쳐쓰기’를 제안한다.

〈표5〉 번역의 방법 2 (John Dryden)

출처 \ 번역방법	metaphrase	paraphrase	imitation
엄재호(1993: 86)			
김지원 외(2004: 101)	직역	의역	모방
정연일 외(2006: 30)	옮겨쓰기	바꿔쓰기	모작
임우영 외(2011: 28-9)	옮겨쓰기	바꿔쓰기	모작

한편, 카울리(Cowley)는 ‘직역’과 ‘의역’의 개념에 아주 자유로운 개념의 ‘imitation’ 번역 방법을 추가하였다. ‘metaphrase’와 ‘imitation’은 ‘기피해야할 양 극단’에 위치하므로 ‘paraphrase’를 지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하여, ‘metaphrase’와 ‘imitation’을 ‘직역’과 ‘의역’으로 대체하면 독자들은 위의 ‘word-for-word’와 ‘sense-for-sense’과 동일시하게 되므로, 드라이든이 의도했던 ‘imitation’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따라서 ‘metaphrase’와 ‘imitation’ 역시 ‘직역’과 ‘의역’ 이외의 다른 대체어(代替語)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의 개념에 대응하는 한 가지 술어가 주어져야 한다’는 술어 번역의 원칙(국립국어연구원 1995: v)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의미의 전달력 측면에서 ‘일의성’(一

意性)(이현주 2007: 1-2)이 갖는 효율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번역 결과물의 번역 방법과 관련하여 하우스(Julian House 1977)가 제안한 번역 유형을 지칭하는 ‘overt translation’과 ‘covert translation’의 술어 번역 사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6〉 번역의 방법 3 (Julian House)

출처 \ 번역방법	overt translation	covert translation
엄재호(1993)		
김지원 외(2004)		
정연일 외(2006: 127-8)	외현적번역	내재적번역
임우영 외(2011: 54)	노출번역	은폐번역
임우영 외(2011: 77)	열린번역	

학계 내부에는 정연일 외에서 채택한 ‘외현적번역-내재적번역’이란 술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한국번역학회(2009: 305)의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과 구하나(2010b: 19-20) 등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우영 외의 경우 ‘노출’과 ‘은폐’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술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일한 번역본의 다른 지면에서는 전자를 ‘열린’번역으로 옮긴 점은 역자 상호간의 술어 번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역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천 문화의 특정한 상황이 목표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화적 지시물(cultural reference)을 바꿀 때 적용하는 번역전략을 가리키는 ‘adaptation’은 ‘번안’(정연일 외 2006: 76)을 지칭하며, 3종의 개론서는 ‘번안’ 혹은 ‘翻譯’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지원 외(2004)에서는 해당 술어를 ‘각색’으로 옮긴 반면, ‘versions’를 ‘번안’으로 옮겼다. ‘translation-version’과 ‘adaptation-version’은 서로 ‘번역’과 ‘번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으므로 번역 술어의 사례 역시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번안’의 사전적 의미¹⁰⁾를 적용해보면 ‘adaption’에 보다 가깝지만, ‘version’의 사전적 의미¹¹⁾를

10) ①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적용하면 ‘개작’¹²⁾에 가깝다. 그리고 ‘각색’은 장르를 아예 바꿔서 작품을 고쳐 쓰는 작업이므로 ‘번안’의 의미를 함유하는 ‘adaptation’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번역학회(2009)에서 해당 술어를 ‘번안’으로 번역한 사실에서 역자들 역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중(言衆)¹³⁾들의 언어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서에 해당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따라서 ‘translations-versions-adaptations’는 ‘번역-개작-번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7〉 번역의 방법 4

출처 \ 번역방법	translations	versions	adaptations
엄재호(1993: 114)	번역	改作	翻譯
김지원 외(2004: 128)	번역	번안(翻譯)	각색
정연일 외(2006: 76)			번안
임우영 외(2011: 72)			번안 (내용의 관점변이)

다음으로 베누티(Venuti)가 제안한 번역의 방법 중 ‘domestication’과 ‘foreignization’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 텍스트 중에서 정연일 외에서 ‘자국화-이국화’로 번역하였다. 3종의 다른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는 해당 사례를 다루지 않아 상호 비교를 할 수 없음이 아쉽지만 대체로 정연일 외의 사례가 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이근희(2010), 강수정(2010), 박옥수(2010), 김한성(2011), 윤성우 외(2011) 등의 사례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술어에 대하여 특이한 사례로는 이희재(2009: 21)의 ‘들이 밀기-길들이기’와 야오강(2012)의 ‘현지화-타지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연일 외는 베누티의 ‘domestication’과 ‘foreignization’에 해당하는 베르망(Berman

맞게 바꾸어 고침.

② 원래의 모습을 살리면서 자기 나라에 맞게 고치거나 바꾸다. (다음(daum) 국어사전)

11) ‘a written work (as a novel) that has been recast in a new form’ (새로운 형식으로 개작한 소설과 같은 글로 쓴 작품). (다음(daum) 영영사전)

12) 장르를 아예 바꿔서 작품을 고쳐 쓰는 작업.

13) 같은 언어를 쓰는 사회 속의 대중 (다음(daum) 국어사전).

2000: 285)의 술어 ‘alienation-naturalization’을 ‘∅-귀화’(2006: 208-13)로, 원종화(2008: 178)는 ‘외국화-현지화’를, 윤재학(2009: 163)은 ‘외래화-토속화’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번역의 방법과 관련하여 번역텍스트에 나타나는 역자의 흔적을 지칭하는 베누티의 ‘visibility-invisibility’ 역시 정연일 외(2006: 206)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관련 연구 논문에서는 전현주(2009a, b)에서 ‘역자의 가시성-불가시성’을, 김한성(2011: 123)은 ‘번역자의 사라짐’을, 그리고 김영신(2012b: 8)은 ‘역자의 가시성-비가시성’으로 술어를 번역하였다. ‘가시성’의 상대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접두사 ‘불(不)’과 ‘비(非)’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둘다 사용할 수 있으나 형용사적 성격을 지닌 접미사 ‘-적(的)’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낱말들은 일반적으로 ‘비-’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표현”¹⁴⁾에 해당하므로 ‘가시성-비가시성’의 술어 번역을 추천한다.

④ 번역의 규범

투리(Toury 1995)는 기술적인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연구 방법론에서 번역 규범(norm)과 관련하여 번역자가 ST의 규범을 준수하는 경우와 목표문화와 목표언어의 규범을 준수하는 경우 TT는 각각 ‘adequacy’와 ‘acceptance’의 양극단 사이의 연속선(continuum)에 위치한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분석 대상 개론서 중에서 정연일 외(2006: 159)에서만 이와 관련된 개념을 다루었으며 각각 ‘충분성’과 ‘수용성’으로 소개하였는데, 번역학 관련 논문에서는 해당 술어에 대하여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상원(2004)이 ‘적절성-수용가능성’으로 지칭한 것을 시작으로 전현주(2006, 2008)와 구하나(2010a)에서 ‘적절성-용인성’을, 그리고 구하나(2010b)에서 ‘충분성-용인성’을, 구하나 외(2010c)에서 ‘적합성-용인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dequacy’의 경우 동일한 연구자가 ‘적절성’에서 ‘적합성’으로

14)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비(非)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비공식/비무장/비민주적/비인간적/비생산적/비업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불(不) 역시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아님, 아니함, 어긋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불가능/불경기/불공정/불규칙/불균형/불명예/불완전에 사용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http://korean.go.kr/09_new/minwon/qna_view.jsp?idx=61990

술어를 바꾸어 사용하면서 후자 쪽으로 정착하고 있다. 한편, ‘acceptance’의 경우는 투리 역시 술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acceptance’와 ‘reception’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했던 사실(Toury 1995: 172)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계에서 ‘수용성’보다는 ‘용인성’으로 술어가 정착되어 일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투리의 견해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어사용의 초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이 차츰 동일한 술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술어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학계 내에서 확산되어 가는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하나 외(2010c: 25)에서 ‘용인성’을 술어로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수용성’으로 술어를 사용할 경우 개념상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8〉 번역의 규범(Toury: 1995)

출처 \ 번역방법	adequacy	acceptability	학술지명
정연일 외(2006: 156-60)	충분성	수용성	
이상원(2004)	적절성	수용가능성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전현주(2006, 2008)	적절성	용인성	
이다현 (2008)		수용성	
구하나(2010a)	적절성	용인성	통역과번역
구하나(2010b)	충분성	용인성	통번역학연구
구하나 외(2010c)	적합성	용인성	번역학연구

⑤ 기타 번역 관련 술어

다음으로 역자가 고려해야 할 번역 전략 중 ‘readability’에 관한 술어의 번역 현상으로 대체로 ‘가독성’, ‘이독성’, 그리고 ‘독이성’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함수진 외(2010: 196)에서는 ‘가독성’(readability)¹⁵⁾을 ‘시각적인 가독

15) 시각적 가독성 단계: 독자가 감각기관을 통해 텍스트를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로 ‘텍스트의 도상적, 편집적 품질(글자체 종류와 크기, 줄 간격 등)과 관련된다. 가독성 단계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언어의 문법지식에 기초하여 단어들과 단어 묶음들, 의미적 연관성 등을 ‘독해’하는 단계로 30년대 이후 문체적 최적화를 위해 제안

성'(legibility)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경(2012: 143-4)은 '이독성'(readability)과 관련하여 번역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독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번역문이 얼마나 도착언어로 자연스럽게 쉽게 읽히는가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읽기 등의 분야에서 가독성을 'legibility'로 표현하며 이는 인쇄상태, 글자의 크기나 글씨체, 띄워쓰기 등 글의 이해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readability'는 '가독성' 혹은 '이독성'으로 지칭할 수 있음을 말한다. 한편, 최문선(2012: 254)은 'readability formula'를 '독이성 공식'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가독성-이독성-독이성'에서 의미의 변별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언중들의 관련 술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4월 10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전문정보를 중심으로 검색한 결과 '가독성'(1683건), '이독성'(306건), '독이성'(39건)으로 사용빈도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번역학연구』에서는 주로 '가독성'을 『통번역학연구』에서는 주로 '독이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언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술어는 '가독성'이며,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 '가독성'과 '독이성'을 사용하는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uto-translation' 혹은 'self-translation'과 관련된 술어로는 전현주(2010)와 이형진(2011)은 '자가번역'을 김옥동(2012)은 '자기번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관련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사례 역시 두 가지로만 대별되며 어떤 술어 사용이 바람직하거나 선호되는지 논의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번역학 관련 사전류의 원전에서 해당 술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판본에서 사용된 두 가지의 술어를 재판본에서 다른 변화상과 관련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현주(2010)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uto-translation' 보다 'self-translation'의 사용이 해당 술어의 의미를 포괄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리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초판(1998)과 『번역학사전』(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초판(1997) 및 재판(2007)에는 'auto-translation'과

된 다양한 공식들 (평균 단어길이, 100단어 당 음절수, 한 문장 당 평균단어 수)과 관련된다. (함수진 외 2010: 196).

‘self-translation’이 등재되어 있다. ‘auto-translation’ 항목에 술어의 정의 및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self-translation’ 항목에는 ‘auto-translation’을 참고 하라고 나와 있다(150).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표제어의 등재순서를 고려하면, ‘auto-translation’이 ‘self-translation’보다 앞에 등재되므로 술어 사용의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어 전자를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접두어 ‘auto’는 ‘self’의 의미도 포함하지만 ‘자동’(自動)의 의미와 연상 작용하여 ‘기계번역’(machine-translation)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술어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2009년에 출간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재판에는 표제어 ‘auto-translation’은 삭제되고 ‘self-translation’만 다룬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의 편집자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2.4 분석 텍스트에 나타난 술어 번역의 특징

본 장에서 살펴본 번역학 개론서의 술어를 번역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엄재호(1993)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학이란 학문분야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않은 번역학의 도입기에 술어를 번역하면서 한문으로 표기하거나 원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술어들의 한문 표기는 도서의 성격이나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특징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어차용의 경우는 아직 술어의 개념을 표현할 마땅한 어휘를 찾지 못하거나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역자가 고심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1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원서의 개정판의 역서인 김지원 외(2004) 역시 번역학의 발전초기에 출간된 역서로 술어 번역에 대한 역자의 고심은 계속되었다고 여겨진다. 사실 동일한 술어의 다양한 번역 현상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에 해당한다. 이 책은 2년 후 출간된 정연일 외(2006)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번역학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는 초기의 역서로 한국의 번역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번역학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출판된 엄우영 외(2011)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서의 서술 언어가 독일어로 출발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번역

학 술어의 번역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치 엄재호의 번역본이 처음 출간될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기존의 번역학과 거의 교감이 없었음을 표출하는 술어 번역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는 국내의 번역학이 타언어권에 비하여 영어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어권과 중국어권, 그리고 독일어권과 불어권 등에서도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영어권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번역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주요 술어에 대한 번역 술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번역학 도입 초기에 유명우(2000: 239)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학술전문용어와 기술용어의 번역은 번역계가 공동으로 연구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출처의 동일한 술어에 대한 번역 술어가 종종 언어권이나 학술지, 혹은 연구자의 소속에 따라 일관성없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번역학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물에서 꾸준히 그리고 암묵적으로 술어 번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 역시 동시에 나타났다. ‘overt translation-covert translation’이나 ‘metaphrase-paraphrase-imitation’의 경우처럼 이원적 혹은 삼원적인 번역 술어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적인 술어 결합’과 ‘한자어와 우리말의 혼용’ 그리고 ‘동일 텍스트 내에서 지면에 따라 술어 번역의 일관성 결여’ 등의 현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술어 번역의 다양성을 차단하기 보다는 최적의 혹은 최상의 번역 술어를 찾는 데 학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술어 사용의 일관성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역학의 토착화와 연구 성과의 확산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술어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번역학 내에서 ‘술어 번역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학은 물론 관련 학문의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개론서나 사전류는 원전이 재판되거나 개정판에 맞춰 번역학 술어가 보다 일관성있게 적용된 번역본의 출간

이 적시(適時)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번역학의 연구 성과물을 세계에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술어의 다국어 대역사전(對譯辭典) 작업도 병행하여 학자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구하나 (2010a) 「목표지향적 번역이론과 ‘용인성」, 『통역과 번역』 12(2): 27-48.
- 구하나 (2010b) 「번역평가와 ‘용인성(acceptabilité)」, 『통번역학연구』 13(2): 1-28.
- 구하나 외 (2010c) 「기대온 투리의 ‘용인성’ 개념과 그 해석」, 『번역학연구』 11(4): 25-56.
- 국립국어연구원 (1995) 『국어학의 번역술어 연구』, 계문사.
- 국립국어연구원 (1996) 『국어학의 번역술어 연구 II』, 계문사.
- 국립국어원 (2007) 『전문 용어 연구, 정리 현황과 과제』, 태학사.
- 김성원 · 김정우 (2011)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33-52.
- 김영신 (2012a) 「역사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13(4): 7-27.
- 김영신 (2012b)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63-78.
- 김옥동 (2012) 「자기번역의 가능성과 한계」, 『통번역학연구』 16(1): 21-37.
- 김정우 (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연구』 1(2): 5-24.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8.
- 김한성 (2011)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이국화: 일본어 소설 『고도』(古都)의 영역 및 한역 비교분석」, 『번역학연구』 12(1):123-43.
- 류동춘 (2005) 「중국문자학 용어 韓譯방안 연구」, 『中國文學』 제43집: 209-234.
- 맹주익 (2003) 「중국 언어학 술어 번역에 대하여」, 『中國語文研究』 17: 29-52.

- 모나베이커 저, 곽은주의 역 (2005) 『말바꾸기』, 한국문화사.
- 모나 베이커 편집, 한국번역학회 옮김 (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신문화사.
- 민현식 (2003) 「언어 규범 정책」 『국어정책에 관한 학술대회: 어문 규범 분야』 13-55.
- 박소영 (2012) 「희곡 번역과 다시쓰기 - 『거미여인의 키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55-79.
- 박옥수 (2010) 「『서울, 1964년 겨울』의 영어 번역물 분석: 텍스트 배경, 인물 성경,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2): 7-31.
- 박용삼 (1995) 「전문용어 사전편찬에 대하여: 특히 독문법 전문용어의 번역의 관점에서」, 『독일문학』 36(4): 209-28.
- 박용삼 (2003) 『번역학 역사와 이론』, 송실대학교출판부.
- 송연석 (2012) 「뉴스편역의 번역규범 -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59-82.
- 야나부 아키라 지음, 서혜영 옮김 (2003) 『번역어 성립 사정』, 도서출판 일빛.
- 야오강 (2012) 「중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욕설표현의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16(4): 145-67.
- 양창진 (2009) 「한국학 자료 번역 도구로서의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 DB구축 연구: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 구축 사례와 그 발전 방향」, 『인문콘텐츠』 16: 307-35.
- 원종화 (2008) 「자막번역에서의 유표적 주제구조」, 『번역학연구』 9(1): 167-91.
- 오미형 (2010) 「자막번역과 텍스트 외적 요소 : 공유지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143-66.
- 오미형 (2012) 「한국영화의 제목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3(1): 59-85.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창간호): 229-48.
- 윤성우 외 (2011) 「번역인식론적 접근: 프랑스 번역철학자 라드미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99-118.
- 윤재학 (2009) 「번역에서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 이론 연구: 소유구문 영한번역의 경우」, 『번역학연구』 10(3): 161-92.
- 이근희 (2010) 「자국어 번역방법의 정의 및 범주화」, 『통번역교육연구』 8(1):

151-71.

- 이다현 (2008) 「목표영상텍스트(TST) 수용성 증진 방안연구: 『친절한 금자씨』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1): 193-213.
- 이미경 (2012) 「번역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기준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3(1): 139-64.
- 이상원 (2004) 「출판번역비평과 번역규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6(2): 39-57.
- 이석규 외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역락.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은용 (2013) 「번역학 용어 번역 유형에 관한 한일 비교 고찰」, 『번역학연구』 14(1): 243-73.
- 이형진 (2011) 「안정효의 Silver Stallion에 나타나는 자가번역(self-translation) 가능성과 한계 연구」, 『비교문학』 53: 251-85.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한국어가 바로 서는 살아 있는 번역 강의』, 교양인.
- 임동훈 (2007) 「국어학 번역 술어의 현황과 술어 번역의 기준」, 『인문학연구』 13: 7-21.
- 임병권 (2002a) 「중국어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들」, 『人文科學論文集』 35: 167-76.
- 임병권 (2002b) 「중국어 문법용어로 본 학술용어 번역의 문제」, 『중국문학연구』 25: 263-78.
- 조남신 · 황서경 (2006) 「사전에서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슬라브어 연구』 11: 137-49.
- 존 험블리, 제프리 코비, 수 엘렌 라이트 저, 이연향 역 (2005) 『번역용어집』, 한국문화사.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79-205.
- 전현주 (2008) 「번역비평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1) 215-57.
- 전현주 (2009a) 「역자의 (불)가시성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9.
- 전현주 (2009b) 「역자의 가시성: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편』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8: 235-68.

- 전현주 (2010) 「자가번역(self-translation) 비평」, 『번역학연구』 11(3): 197-223.
- 정호정 (2007)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번역학 연구를 위한 용어 통일의 시급성」,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173-203.
- 정호정 (2010) 「번역과 전문용어학,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2): 235-55.
- 최문선 (2012) 「통역 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 -통역 교육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45-76.
- 함수진 외 (2010) 「기술문서의 한일기계 번역 문제에 대한 통제언어 연구 ‘되다’ 구문의 기계번역 수월성 제고를 위한 통제규칙」, 『번역학연구』 11(4): 191-238.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 (200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Holmes, J. S. (1988/2004)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 Venuti (ed.) (2004). 180-92.
- Shuttleworth, M. & Moira Cowie (1999/200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UK & Kinderhook (NY), USA: Saint Jerome Pub.
- Snell-Hornby, M. (1988, revised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 Venuti, L. (2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nd edition.

분석 대상 텍스트

- 수잔 배스넷-맥과이어 지음, 嚴宰鎬 옮김 (1993) 『번역학개론』, 인간사랑.
- 수잔 배스넷 지음, 김지원 외 옮김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 Jeremy Munday 지음, 정연일 외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한국외대출판부.
- 라데군디스 슈톨체 지음, 임우영 외 옮김 (2011)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 한국외대출판부.

참고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korean.go.kr/09_new/minwon/qna_view.jsp?idx=61990

<http://ja.wikipedia.org/wiki/翻譯研究>

<http://zh.wikipedia.org/wiki/翻譯研究>

[Abstract]

A Study of Terminology Translation in Translation Studies

Chun, Hyunju
(Hanbuk University)

The primary aims of this study are to explore the phenomena of terminology translation in Korean Translation Studies using 4 major reference books and to examine the relative cases in order to suggest the significance, and the dissemin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new disciplinary, Translation Studies. The prominent features are the variety and the inconsistency of terminology translation referring to the same one(s) and in the same translated text by the relative academies, languages, and journals. Considering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lars, students, relative academic programs, and its study results, the discussions and examinations on the terminology and its translation are timely required. And more attention to the usage of the academic translation terms in the general reference books and papers and to the mutual effort of academic societies shall be consistently required within the academies in order to set up the systematic translation theories and their concepts, to correct the undesirable cases, and to give the improved suggestions or guidelines.

▶ Key Words: terminology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terminology dictionary

전현주

한북대학교 영어학과 조교수

transju@hanbuk.ac.kr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평가, 출판번역, 번역과 문화

논문투고일: 2013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9월 16일